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09. 7. 2.(목) 10: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송도균 부위원장
이경자 위 원
이병기 위 원
형태근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 가. 성원보고
 - 나. 국민의례
 - 다. 개회선언
 -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외국법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출자금지 위반행위 제재조치에 관한 건 (2009-29-142)

- 전차 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되어 재상정된, 「방송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고 그 시정명령을 3회 불이행한 (주)쌍용 및 그 대표자, 대구문화방송(주)에 대한 '외국법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출자금지 위반행위 제재 조치에 관한 건'을 재심의 하였으나, 위반사실 공표 의무 부과 방안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 재상정 하기로 함.

사. 보고사항

1)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케이블TV 채널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아날로그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아날로그 기본형 상품」의 가입자가 없는 SO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상품의 폐지를 승인하여 채널을 운용토록 하는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케이블TV 채널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을 원안대로 접수하고, 세부 사안별로 필요 시 별도 의결하기로 함.

< 주요 내용 >

- 「아날로그 기본형 상품」 폐지 승인 조건 :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방송용으로 전환되는 주파수 대역의 50% 이상을 실시간 방송채널로 운용하여야 하며, 승인 신청 시 향후 2년간의 주파수 대역 운용계획을 제출할 것
- 전체 운용채널수 규제 : 아날로그 기본형 상품을 폐지하는 경우, 디지털방송에서 70개 이상의 채널을 운용하면 전체 운용채널수 관련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해석
- 송출 채널수 제한 규제 : 아날로그의 경우, 「아날로그 기본형 상품」 폐지에 따라 축소된 전체 운용채널수를 기준으로 송출 채널수가 제한되는 채널을 편성토록 함

2)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지난 제25차 회의 시 1차 보고되어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한 사항으로서, 신용협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검토결과에 대하여 다시 보고를 받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번호이동 관리센터)가 신고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원안대로 접수함.

○ 주요 내용

- ① 신규·명의변경 가입자의 번호이동을 3개월간 제한(신설)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 허용하도록 함
- ② 고객정보(마일리지, 장기할인, 포인트 등) 확인 절차 신설
 - 번호이동 요청시, 변경전사업자가 가입자에게 SMS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알리도록 하고, 가입자 의사 확인 후 번호이동 절차 진행

아.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09. 7. 8.(수) 10:00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2:05)